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 '말'로 잡아라

본 문 요한계시록 2장 26-27절

* 사회자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미리 말해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주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화면을 보면서 주제의 말씀을 다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영상1>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
'말'로 잡아라!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 했는데, 성자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해 줘야 모두 그 의미를 깨닫고 성자 주님도, 그 분체도, 모든 생명들도 ‘입’으로, ‘말’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새벽에 자는데 꿈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선생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다 끝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 보니, 내 혼체가 본 상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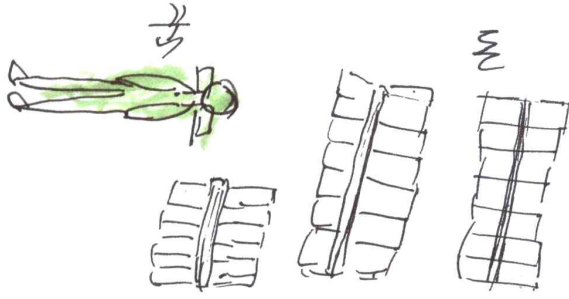


‘길을 가다가 더 갈 곳이 없이 다 간 것처럼, 잠잘 만큼 다 자서 잠길을 다 갔으니, 일어나라고 성자 주님께서 깨워 주셨구나.’ 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벌써 일어날 시간이 됐네.’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누워 있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또 꿈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내 방에 돈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꿈에 돈뭉치가 쌓여 있었다’ : 양손을 펴서 눈 쌓인 것을 표현하듯이 표현)



꿈에서 돈뭉치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서 ‘돈은 시간이다! 내가 일어나서 시간을 쓰면, 바로 이 돈을 내가 쓰는 격이라고 주님께서 보여 주셨구나!’ 하고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상2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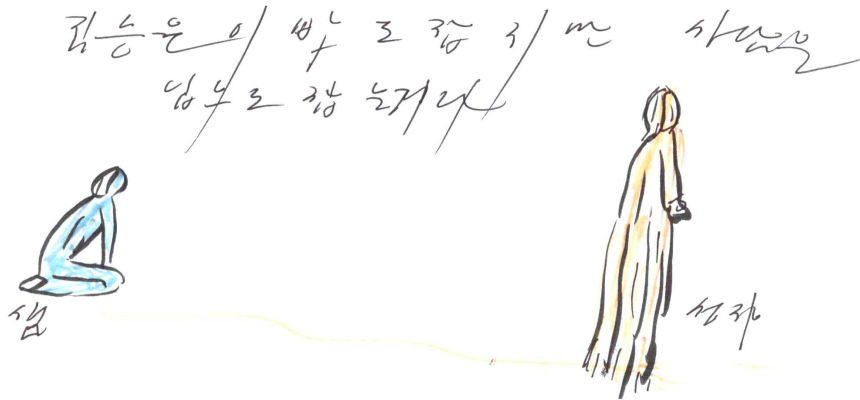
“시간은 돈과 같으니, 네가 어서 일어나서 시간을 써야 꿈에 돈뭉치가 보였듯이 그 돈을 내가 쓰게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이같이 깨닫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일어나서 씻고 기도하는데, 성자 주님의 마음과 행하심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깨웠으니 이제는 기도하겠지. 씻고 무릎 꿇었으니 또 안 자겠지. 기도하다가 자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시고 느낌에 주님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선생은 매일 기도하는 순서에 따라 섭리사의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 하셨습니다.



이에 방법을 알고 즉시 입으로 “성자 주님, 사랑해요.” 하며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할 말이 있어요. 새벽 잠언도 쓰고 이야기 잠언도 써야 하니, 말씀들 다 주고 가세요. 짐승은 이빨로 잡고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며, 또 입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보이지는 않는데, 서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잠언을 쓸 테니 잠언 주세요.”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기에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①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 양손으로 동물이 이빨로 잡는 모습 표현

②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 :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입에서 말이 나가는 모습 표현

잠언을 쓰다가 주님과 대화하며 지난날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때 일할 때는 제대로 모르고 했는데, 그때가 지났으니 비밀을 말해 주세요.” 하며 한 가지씩 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며 “그때는 누구누구를 쓰고 내가 직접 해 주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상3 끝>



★★ ‘진정한 사랑의 말’로 성자 주님의 가시는 발길을 잡는 것입니다. 성자 주님은 우리가 배운 복음의 말씀으로는 못 잡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성자 주님을 붙잡는 말은 신랑에게 필요한 ‘신부의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의 끈’으로 잡아야지, 다른 것으로는 전지전능하신 성자의 몸과 발을 잡을 수 없고, 그 마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자의 몸과 발과 마음을 잡을 수 없다’ : 양손으로 앞에 도망가는 사람을 잡듯이 잡는 모습 표현)

★ 사람도 ‘심정을 알아주는 말’로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잡는 것입니다. 성자 주님이 말씀한 것을 지킨 자들은 주님이 보실 때 신뢰가 있어서 더욱 잘 잡게 되고, 뜨거운 심정의 사랑의 대화로 잡게 됩니다.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쉽기만 하지, 못 잡습니다.

★ 흐르는 물을 가만히 두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도 가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아쉬워하기만 하면 그냥 가 버리십니다. 성자 주님의 심정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성자 주님을 잡고 같이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 주님을 잡을 때는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심정의 말과 진정한 사랑의 말’로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빨이 강한 동물이라도 온 힘을 다해서 물지 않으면 놓쳐 버립니다. 성자 주님도, 그 분체도 ‘말’로 잡되 시원찮은 말로 잡으면 놓칩니다. 마치 남녀가 연애했을 때 변치 않

는 사랑을 고백하며 진정한 마음과 말로 잡듯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해 주십니다.

★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잡아야 됩니다. 그 분체와 형제들과 생명들을 말로 붙잡을 때도 ‘상대가 원하는 말’로 ‘진정한 사랑의 심정의 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자와 그 분체를 ‘평범하게’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 연구하여 희망과 사랑의 새로운 이벤트를 하면서, ‘차원 높여’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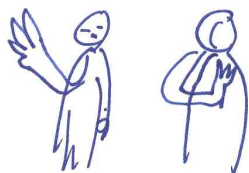


(‘평범하게’ : 양손을 펴서 팔꿈치를 꺾고 수평으로 표현)



(‘새롭게 차원 높여’ : 양손을 펴서 팔꿈치를 꺾고,
오른손, 왼손 한 손씩 교체하면서
계단 올라가듯 표현)

어떤 교회들은 3년 전에도 그 차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도 그 차원의 위치에서 머물며 기성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 손가락 세 개 편다)

(‘지금도’ : 손을 펴서 가슴 앞에 댄다)

변화가 없습니다. 심령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도 교인들도 모두 저 기성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 주님께서 교회에 왔다 가셔도 주님을 못 잡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성처럼 그대로 머물며 신앙생활 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일하고 태만하고

희망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신앙의 가뭄이 듭니다. 좋게 변화되지 않고 나쁘게 변질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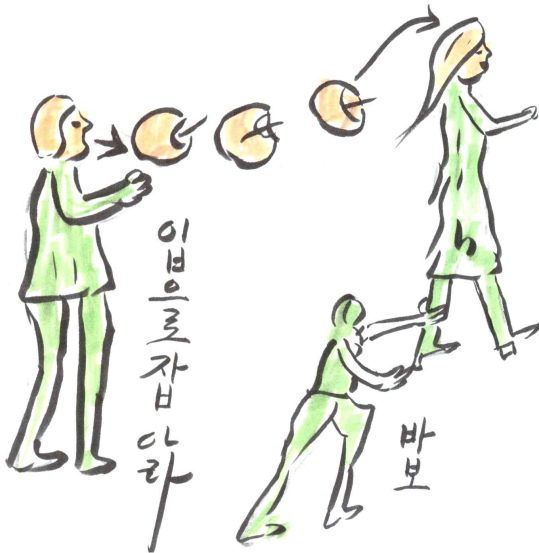
오늘 말씀대로 꼭 행하기 바랍니다. 성자 주님도, 그 분체도 ‘사랑과, 은혜와, 진실한 심정과, 사랑의 말’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점점 떠나가는 자들도 손으로 잡는다고 잡히지 않으니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말과 화평의 말’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말로 잡는다’ : 양손을 공을 잡듯이 하고 가슴 앞에 놓는다.

그리고 위아래로 한 뼘씩 흔들면서 심정을 쏟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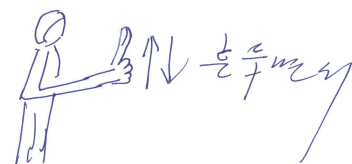
각 교회 지도자들도 평신도들도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속히 행해야 됩니다. <영상4 끝>



이제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엄지를 들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성자 주님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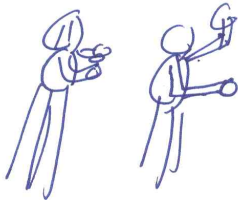
<영상5> 성자 출현



<성자의 말씀>

(* 화면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영상6>

육적 이별, 심정의 이별, 마음의 이별을 하면 슬픔과 외로움과 적적함과 쓸쓸함과 곤고함과 눈물뿐이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이별' 표현)

고로 사랑하는 나 성자와 내 분체를 매일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것이다. 나와 내 분체를 못 잡으면 몸이 떨어지는 이별을 하고, 마음이 떨어지는 이별을 한다. 그러면 슬픔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곤고함이다. (2쪽 6번 초안 다시 그려 넣기)

성자로 분체로 붙잡으려 땀 흘려
근고 눈물 흘려 슬픔의 이별이



신부는 신랑과 사랑의 연애를 해야 한다. 신부가 신랑을 붙잡으면 사랑과 기쁨의 잔치다.

★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 휴거의 목적, 성자 재림의 목적이 모두 '사랑' 이다. 먼저 육 있는 자인 내 분체와 일체 되어 교통하고, 그다음에 신령한 자인 나 성자와 일체 되어 교통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너희 형제들끼리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영상6 끝>

‘시대 말씀’ 을 가지고 전하여 생명을 붙잡아 구원하고, 하늘의 영원

한 길을 가게 해 주어라.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른다. 말을 해야 안다. 나
 성자도 말 안 하면, 알아도 그냥 간다. ‘말’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심정과 사랑의 말’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모두 이 말을 듣
 고 행하면, 너희가 많은 것을 얻고 잘되고 형통하리라. 말의 힘, 입의 사
명, 심정의 생각으로 사명을 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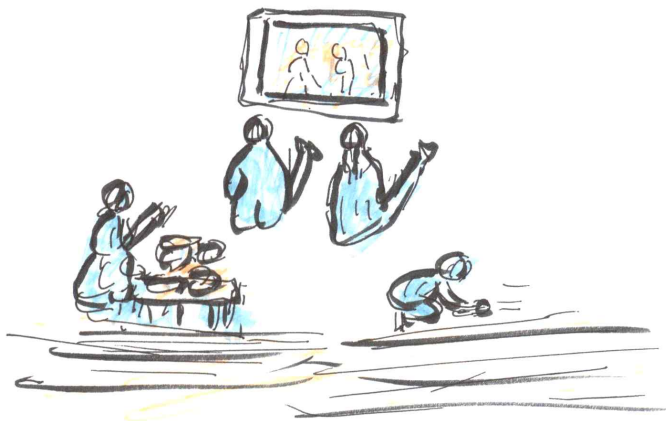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내가 네 옆에 와 있는데 기도
만 하면 되겠느냐. 기도는 나 성자와의 이야기다. 나와 이야기할 것 다 하
 고, 그다음에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일만 하면 그
 냥 가듯이, 나도 그러하다.



(‘내가 네 옆에 와 있는데’ : 오른손 주먹 쥐고 위아래로 흔든다.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 왼손은 주먹 쥐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 표현)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자기 애인이 왔는데 제 할 일만 하면, 애인이 슬쩍 가 버리지 않겠느
 냐. 애인이 왔으면 열 일 제치고 애인과 말하는 것이다. <영상7 끝>



땅의 것은 잘하면서 하늘의 것은 못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듣고 알았으
 니, 모두 평생 실천하는 것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항상 나 성자와 내 육인 분체를 붙잡고 행하여라! 나와 내 분체를 붙잡고 함께 먹고 마시며 전도하고, 관리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삶을 살고, 섭리사의 각종 일을 하는 것이다. 나와 나의 분체를 붙잡고서 성령집회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나와 나의 분체를 붙잡고서 월명동 자연성전도 하늘의 구상을 받아 행하는 것이다. 그 래야 하는 일이 잘되고, 나의 신부로서, 섭리인으로서 보람의 삶을 산다.



나 성자는 내 분체와 함께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너희 각자에게도 교회에도 도적같이 간다. 안 같 일이어도 너희가 나와 내 분체를 부르고 찾고 매달리면 간다. 영의 눈과 혼의 눈을 뜬 자는 안다. <영상8 끝>



나 성자와 시대마다 하늘이 보낸 사명자를 못 잡아서 개인·가정·교회·민족이 하는 일이 깨지고 고통의 길을 갔다. 초림 때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를 쓰고 왔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를 잡았느냐. 오히려 외면하고 불신하고 죄인시하고 핍박하지 않았느냐. 구역사가 새 역사를 외면함으로 그 시대에 하늘이 역사하는 구원주를 못 잡았다. 그러니 시대 구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모두 전심으로 진정한 사랑과 심정으로 나 성자와 내 분체를 잡아라. 평소 신앙을 그리하여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이 시대 재림 때의 내 분체인 너희 선생은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를 쓰고 나타났을 때, 즉시 예수를 잡고서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좇고 잡고 따랐다. 나사렛 예수를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기를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듯 했다. 결국 절정에 올라 나 성자 본체를 깨달아 하늘 최고의 비밀과, 섭리사의 대희망과, 시대의 소망을 밝혔다. <끝>

★ 너희는 이 시대 나의 육을 알고 나 성자 본체를 알고 따르는데도 저 신약권에서 신약권의 분체를 따르는 자들만도 못하다면, 새 역사 섭리에서 살아도 신약권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섭리인은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시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 입으로 잡으라는 말을 깨달아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에게 왔다. 그 육신이 시대의 입이다. 고로 그 육신을 증거하면서, 그 입으로 시대 생명들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 입을 통해 나 성자의 시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느냐.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이 엄청나게 위력 있는 입이다. 시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증거함으로, 또 그 시대 말씀으로 저 생명들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나의 분체가 아니면, 어떻게 시대 말씀의 입으로 생명들을 잡아서 희망을 주겠느냐.

★ 나의 분체가 이 시대 온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며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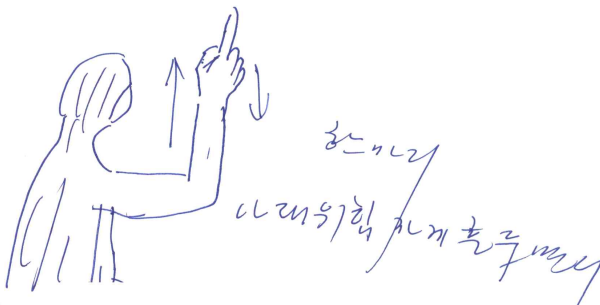
(오른쪽 팔꿈치를 반 접고 손가락 두 개를 뺀고,
아래위로 흔들면서 강조)

내 분체를 잡으면, 그가 나 성자를 증거하여 나를 잡게 되고, 그로 인해 육 휴거와 영 휴거를 이루고, 나의 재림을 맞아 영원한 구원을 받지 않느냐. 고로 너희부터 진실로 나의 분체를 말로, 글로, 삶으로, 사랑으로 잡아라. 보이는 그를 잡듯, 안 보이는 나 성자도 잡는 것이다.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이 희망이 아니면 어떤 것이 희망이냐. 이것이 이 시대 모든 인생들의 희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사니 10년, 20년이 가도 답답한 삶을 사는 것이다.

(*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상10>

천 마디 물음과 문제의 답은 나 성자가 내 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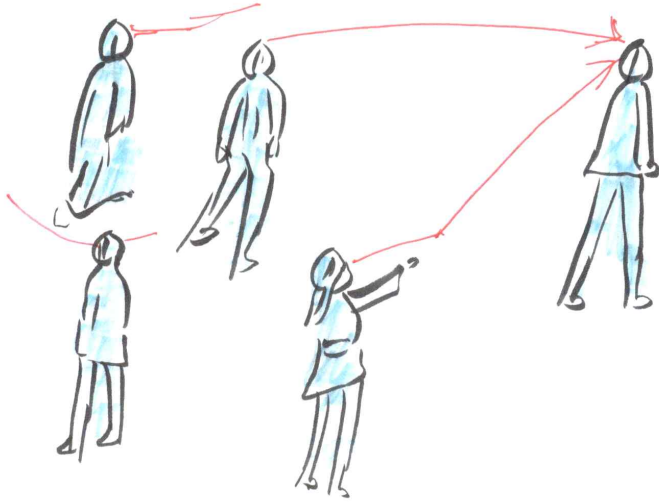
(‘천 마디 물음과 문제’ : 손가락 전체 들기)

‘한마디로 전한다’ : 오른손 검지를 들고 아래위로 힘차게 흔들면서 표현

- 힘차게 하라는 부분은 힘차게 해야 어색하지 않아.

몰래 도둑질하듯이 하지 말고, 벗겨진 팬티를 올리듯 힘차게 제스처 해라.)

고로 너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중심하여라.



나와 내 분체를 입으로 붙잡아 모든 일을 하라고, 나의 깊은 비밀을
말해 준 성자니라. 샬롬! <영상10 끝>